



KOREAN A1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SUPERIOR – PRUEBA 1

Monday 22 May 2006 (morning)
Lundi 22 mai 2006 (matin)
Lunes 22 de mayo de 2006 (mañana)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a) 새 우애론

폐쇄적인 사회, 인습의 사슬에 시달려 온 우리들은 정신 면에서나 물질 면에서 서구적인 것의 강렬한 동경을 지녀 왔다. 서구화는 곧 현대화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현대사회를 이루고, 진보적 사고와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생활을 위하여는 열심히 서구화되어야 한다는 지향을 가졌었다.

5 때문에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체에 걸쳐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서양의 것을 그대로 이식하려 하였고 모방하려 하였으며, 그러한 이식이나 모방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침란적이며 참시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10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는 이런 무조건적인 모방 추세에 비판을 가하는 반성의 기운이 일고, 우리의 옛 것과 남의 새 것을 잘 조화시키며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여서는, 매우 지성적이며 바람직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다.

15 우리의 가족 제도만 하여도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바뀌면서 가족 상호간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애육하며 형제가 사랑으로 뭉치고 친척이 화기롭게 지내던 것이 우리 옛 전통의 가풍이었다면, 핵가족 제도에서 나타난 개인적이며 합리적 생활 태도는 종적 가족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횡적인 형제애의 양상까지도 많이 바꾸어 놓고 말았다.

네 것, 내 것을 분명히 하고, 각자 분가하여 독립 정신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형제 관계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물론 옳은 점이 있다. 그러나 옛날의 형제 관계는 피와 살을 함께 나누었다는, 보다 진한 의식 속에 맺어졌었다.

20 다분히 감정적이며 본능적인 이러한 관계 의식에도 문제가 없는 바 아니다. 그러나 네 일을 내 일로 생각하고,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너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던 우리의 옛 형제애의 가깝함을 깡그리 부정하려는 태도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를 보다 차갑게 만드는 요인이 되리라고 본다.

초등학교 책에도 실려 있는 정다운 형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25 가을 추수가 끝난 후 형은 새로 살림난 동생을 염려하여 벼를 저다가 동생네 눈에 몰래 두고, 동생은 가족이 많은 형을 위하여 자기 벼를 형님 눈에 몰래 가져다 두다가 결국 형제가 중간에서 만난다는 이야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의 청소년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가끔 형제들이 다투는 때가 있으면 옛 어른들은 우선 형에게 “ 너는 형이면서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어째서 다투느냐.” 고 나무람을 하셨다. 그러면 동생이 자기 역성을 하는
30 줄 알고 우쭐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동생을 향하여 “ 너는 형보다 나중 난 동생이면서
어째서 형에게 덤비고 다투느냐.” 고 꾸중을 듣게 마련이었다.

이러한, 얼핏 보아 대단히 비합리적 교육 방법이 그러나 대단히 따듯하고 두터운
형제애를 마련해내었다고 하면, 나아가 그것이 인정 있는 사회를 이루고 그 인정에
바탕을 둔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에게 있었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우주 시대를
35 살더라도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허영자, [허영자 수필집])

1. (b) 목계장터

-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 5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10 산서리 맵차거든 풀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꿍어넘는 토방 텃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지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 15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신경립, [엘레강스])